

# 올림픽공원에서 꼭 봐야하는 조각작품 9경

## 【 조각공원 조성 배경 】

- [취지] 1987년 7월부터 1988년 10월에 걸쳐 문화올림픽 사업으로 추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된 세계현대미술제의 “제 1, 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과 “국제야외조각초대전” 을 통해 국내외 유명작가 조각 작품으로 조성

- [주제] “화합과 전진”, “세계의 평화” 라는 올림픽 이념을 작품을 통해 구현  
동서 진영으로 갈라진 지구촌 상호화합 유도 및 대회 참가 독려를 위해 지역, 언어, 문화, 정치적 장벽을 넘어 세계적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음

- [관리] 올림픽레거시로 가치를 보존하며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품관리

조성 당시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세계유일의 조각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와 작품 수 보유, 220여점의 조각작품을 올림픽공원 곳곳에 산재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함

## □ 9경 선정 기준

- 작가 인지도, 활동 경력, 작품성, 공원 내 설치 환경 등

## □ 작가 구성

- 국내작가 2인, 해외작가 7인

- [국내작가] 문신, 이우환

- [해외작가]

- (미 국) 루이스 부르주아, 조지 리키, 데니스 오펜하임
- (스 페 인) 요셉 마리아 수비라치
- (이탈리아) 마우로 스타치올리
- (프 랑 스) 세자르 발다치니
- (베네수엘라) 헤수스 라파엘 소토

## ① 세자르 보다 더 인정받은 문신의 “올림픽-1988”

**문신** Moon-shin (1923~1995)

대한민국의 화가 겸 조각가.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파리로 건너가 회화와 조각 작업에 열중하여 파리와 유럽 각지의 국제적인 조각전 또는 조각 심포지엄에 거듭 초대되기도 하였다. 1980년에는 귀국하여 경남 마산에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1991년 프랑스 정부는 문신의 한불 문화 교류의 큰 공로를 높이 여겨 '예술문학기사' 훈장을 수여했다. 1990년 파리 아트센터 초대전, 1991년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 초대전, 1992년 파리시립미술관 회고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로 평가받았다.



작 품 명	올림픽.1988 (Olympic.1988)
작 가 명	문신
국 가	대한민국
크 기	8.0x8.3x25.0m
재 질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9.30
작품출처	조각초대전
작품위치	남4문 주변

## ②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엄지손가락(The Thumb), 세자르

### 세자르 발다치니 Cesar Baldaccini (1921~1998)

프랑스의 조각가. 금속에 흥미를 가져 1947년 이후에는 금속을 소재로 한 추상조각을 발표하였다. 처음에는 연판을 이용한 조각에 몰두했으나 철사·철근·볼트·스프링·쇠조각 등 폐품 합성에 의한 오브제적인 조각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1965년부터는 폴리우레탄 등 플라스틱의 액체를 흘려 응고시키는 독특한 수법을 쓰는 등 전위적인 조각으로 돋보이는 등 누보 레알리즘의 한 축을 형성한 작가이다.



작 품 명	엄지손가락 (The Thumb)
작 가 명	세자르 발다치니
국 가	프랑스
크 기	3.6x2.7x6.0m
재 질	청동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4.30
작품출처	2차 심포지엄
작품위치	만남의 관장

### ③ 가우디의 뒤를 이은 스페인 국보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의 “하늘기둥”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 Josep Maria Subirachs (1927~2014)

스페인의 화가이자 조각가.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주의 왜곡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며 주로 표면을 들쭉날쭉하게 거칠게 만든다. 돌, 청동, 구리, 시멘트, 점토,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을 진행했다. 작가의 작품은 주로 공공장소나 광장, 공원 등에 위치하며 작가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패션 파사드이다.



작 품 명	하늘 기둥 (The Pillars of the Sky)
작 가 명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
국 가	스페인
크 기	5.5x3.5x15.0m
재 질	콘크리트
제작년도	1987
소장일자	1987.09.30
작품출처	1차 심포지엄
작품위치	지구촌공원

#### ④ 리움미술관 초대형 거미조형물의 루이스 부르주아의 “단편들”

###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1911~2010)

프랑스 태생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조각가.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70세가 넘은 나이에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20세기 가장 주목받은 조각가 중 한명이다. 삶의 기억과 고통, 그리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세계는 인간사에 대한 모순과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르주아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거대한 거미를 형상화한 <마망 Maman>을 삼성 리움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연대감 등 유년의 기억을 토대로 모성과 경외감, 두려움을 거대한 크기로 표현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한 다리는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 품 명	단편들 (Shredder)
작 가 명	루이스 부르주아
국 가	미국
크 기	2.3x2.3x2.3m
재 질	나무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9.30
작품출처	조각초대전
작품위치	미술관 1관 출구

## 5 일본미술을 뒤집어 놓은 한국미술의 거장, 이우환의 “관계항”

**이우환** Lee Ufan (1936~)

화가이자 조각가로 경상남도 출생. 1956년 서울대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독일하여 일본에 거주했으며, 1961년 일본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대 말기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물건을 사용한 <조각>을 발표하고 일련의 평론 활동을 하며 당시의 가장 중요한 현대미술의 동향을 주도하는 작가의 한사람이 되며 일본의 예술운동인 모노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1972년 이후 다마미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1977년 카셀의 도큐멘타전에 출품했다.



작 품 명	관계항: 예감 속에서 (Relatum: By Omen)
작 가 명	이우환
국 가	대한민국
크 기	14.0x15.0x2.3m
재 질	철, 화강암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4.30
작품출처	2차 심포지움
작품위치	미술관 주변

## ⑥ 작은 바람과도 소통하는 조지리키 “비스듬히 세워진 두 개의 선들”

**조지 리키** George Rickey (1907~2002)

미국의 조각가. 1928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1929~1930년 파리의 앙드레 로드 아카데미에서 배움을 이어나갔다. 귀국 후 교육과 키네틱 조각 제작의 양면에서 활약하였으며 금속을 소재로 한 가동적 구성적 입체작품, 음을 발생하는 작품 등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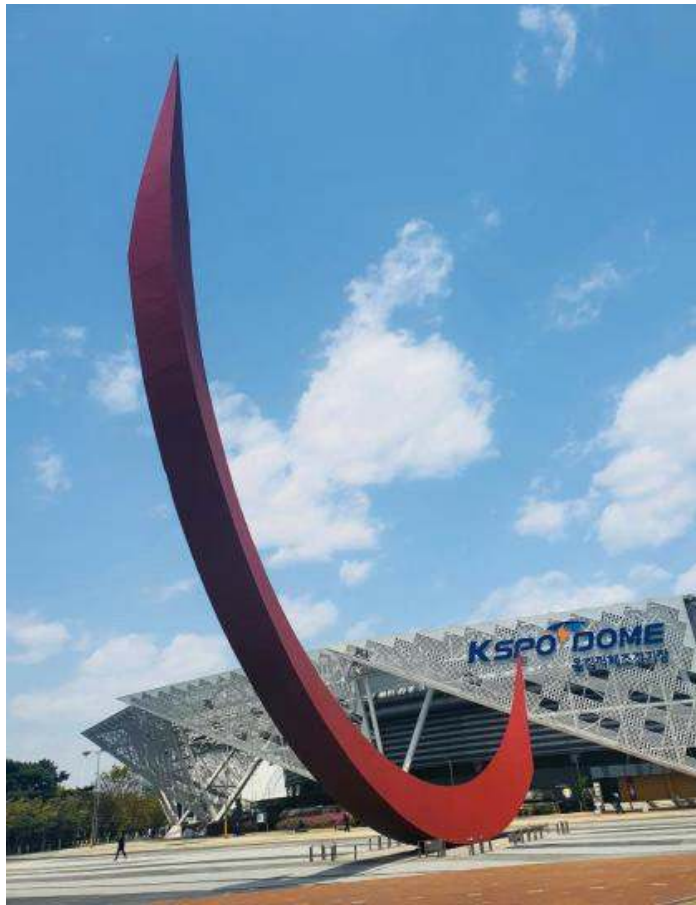


작 품 명	비스듬히 세워진 두개의 선들 (Two Lines Oblique Up)
작 가 명	조지 리키
국 가	미국
크 기	3.5x1.6x6.8m
재 질	스테인레스 스틸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9.30
작품출처	조각초대전
작품위치	미술관 1관 출구

## 7 Nke인가? 예술인가? 마우로 스타치올리의 “Seoul 88 Olympics”

### 마우로 스타치올리 Mauro Staccioli (1937~2018)

이탈리아의 조각가. 볼테라에서 태어나 1954년 예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회화와 판화를 실험한 초기 단계 이후, 60년대 말에 그는 조각에 큰 관심을 가지며 작업을 이어나갔다. 주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며, 물리적, 사회적 의미 모두에서 장소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각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1970년대 초부터 도시 환경을 선택하고 조각으로 사회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조각으로 그는 그곳을 표시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식을 변화시킨다.



작 품 명	88 서울올림픽 (Seoul 88 Olympics)
작 가 명	마우로 스타치올리
국 가	이탈리아
크 기	37.0x2.0x27.0m
재 질	콘크리트
제작년도	1987
소장일자	1987.09.30
작품출처	1차 심포지엄
작품위치	한얼광장



## 8 역사의 진실이 아닌 위선을 보여준 데니스 오펜하임의 “Impersonation Station”

**데니스 오펜하임** Dennis Oppenheim (1938~2011)

미국의 조각가. 워싱턴 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불꽃을 사용한 조각가로 유명하다. 1983년 아카라이케더 갤러리에서 밤의 어두움 속에서 불꽃기둥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콘셉추얼 아트와 랜드 아트의 이상적인 결합으로 마르셀 뒤샹의 미국 내 계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1969년 《태도가 형태가 될 때》와 1972년 《도큐멘타 5》를 비롯한 국제전에서 활동하였다.



작 품 명	위장지 (Impersonation Station)
작 가 명	데니스 오펜하임
국 가	미국
크 기	9.8x13.0x9.0m
재 질	스테인레스 스틸, 콘크리트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4.30
작품출처	2차 심포지엄
작품위치	만남의 광장

## 9 장미광장서 만나는 한국 사랑, 헤수스 라파엘 소토의 “가상의 구”

### 헤수스 라파엘 소토 Jesus Rafael Soto (1923~2005)

베네수엘라 출신의 조각가. 1942~1947년 카라카스 조형예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1950년 파리로 이주해 다양한 추상 예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주로 시각적 착시를 바탕으로 둔 비재현적인 추상작업을 선보이며 옵아트, 키네틱 아트로 분류되는 그의 예술은 특히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조각의 확장을 실현하였다.



작 품 명	가상의 구 (A Virtual Sphere)
작 가 명	헤수스 라파엘 소토
국 가	베네수엘라
크 기	17.0x17.0x24.0m
재 질	알루미늄
제작년도	1988
소장일자	1988.04.30
작품출처	2차 심포지엄
작품위치	장미정원